

# 봉화 청량산과 조선시대 사대부\*

## Mt. Chungryang and the Literati in the Chosun Dynasty

정치영(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cyjung38@korea.ac.kr)

본 연구는 조선시대에 저술된 총 20편의 '靑涼山遊山記'를 자료로 당시 사대부들의 봉화 청량산 여행 관행을 고찰하고 그들이 여행 후에 가지게 된 청량산에 대한 장소이미지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를 통해 고찰한 사대부들의 금강산·지리산 여행관행과 비교해, 산의 규모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는 청량산 여행이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 지에도 주목하였다.

청량산은 행정구역상 경북 봉화군 명호면·재산면과 안동시 일부에 걸쳐 자리 잡고 있으며, 최고봉인 장인봉의 높이가 870.4m, 전체 둘레도 40km 남짓한 그다지 크지 않은 규모이나, 퇴적암류 특히 역암으로 이루어진 12개의 봉우리들과 기암절벽이 어우러져 '소금강'이라 불릴 정도로 그 경치가 아름다워서 1982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경상도 내륙의 작은 산에 불과했던 청량산은 15세기까지 여행자들의 주목을 별로 받지 못하였다. 당시 청량산을 찾던 이는 인근에 살던 젊은 지식인들로, 이들이 사찰에 머무르며 독서와 사색에 몰두하면서 청량산은 강학의 공간이 되었다. 청량산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6세기부터인데, 여기에는 주세붕, 이현보, 이황 등의 역할이 컸다. 특히 퇴계 이황은 청량산을 '오가산(吾家山)'이라 칭할 정도로 이 산과 깊은 인연을 맺었으며, 이 때문에 청량산은 퇴계와 동일시되어 그의 후학들에게 있어 성지(聖地)와 같은 곳이었다.

이런 이유로 여행자들의 절반 이상은 이황과 혈연 및 학연, 그리고 지연으로 연결된 이들이었다. 지역적으로는 20명 중 12명이 봉화·안동·예안·풍기 등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이었으며, 퇴계의 제자이거나 그의 학통을 이은 남인(南人)계열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여행자들의 개인적 특성은 여행 동기에 영향을 미쳐, 단순한 산수유람 보다는 선현의 발자취를 쫓고 공부를 하기 위해 청량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으며, 특히 퇴계의 행적을 따르고 본받으려 여행에 나선 사람들이 많았다.

청량산 여행의 여정은 금강산 여행의 그것에 비해 단순하며 개인에 따른 다양성이 적었으나, 선인의 여행경로를 답습하는 등 유사한 특성도 지니고 있었다. 주목을 끄는 것은 여행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경유한 장소들이 이황 또는 여행자의 스승이나 선조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라는 점이다.

여행관행은 여행시기와 기간, 동반자와 준비물, 교통수단과 숙박지 등의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여행시기는 금강산 여행과 마찬가지로 가을을 가장 선호하였으나, 몇몇 사대부들은 겨울산행을 감행하였다. 이들이 주위의 걱정과 만류를 무릅쓰고 겨울 산에 오르는 것은 바로 겨울에 형산(衡山)에 오르는 주자(朱子)와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KRF-2003-072-1027)

장식(張拭)의 행태를 본 받기 위함이었다. 여행의 동반자는 가족과 친구가 일반적이었으며, 여행자의 신분, 사승 및 교유관계와 깊은 관련이 있었다. 교통수단으로는 주로 말을, 숙박지로는 사찰을 많이 이용한 것은 금강산 여행과 유사한 점이나, 왕복로 상의 숙박지로 유력 가문이 세거하는 마을이나 서원을 많이 이용한 점이 흥미롭다.

20명의 사대부가 여행을 통해 얻은 청량산에 대한 장소이미지는 청량산이라는 하나의 대상을 감상하고 난 후 얻은 것이나, 개인 나름의 개별적인 내용이 있고 여행자 대부분이 공유하는 것도 있다. 대부분의 사대부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장소이미지는 청량산이 이름 그대로 맑고 깨끗하며, 한편으로 절개 있고 울퉁아 범접하기 어려운 선비와 같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는 대부분의 봉우리들이 깎아지른 암벽으로 이루어져 있어 보는 사람에게 우뚝하고 곧은 느낌을 주며, 실제로도 접근하기 어려운 지형적 특성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아울러 청량산은 한 눈에 들어올 정도로 규모가 작고 비슷한 크기의 봉우리들이 웅기종기 모여 있어 아담하고 단정한 이미지로 형상화되었다.

그러나 사대부들의 장소이미지 형성에는 이 같은 청량산의 자연경관상의 특성만 작용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청량산이 가진 상징적 의미가 한층 더 중요하게 작용하였으며, 그것은 앞에서 언급한 퇴계와 밀착되어 있다. 즉 대부분의 사대부들은 청량산을 절개가 있고 중후하여 존경할 만한 사람의 모습에 비유하고 있다. 이중 이항보다 앞선 주세붕과 청량산을 공자에 비유한 권호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청량산을 보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던 퇴계의 영상을 떠올렸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러한 청량산의 장소이미지는 특히 퇴계의 학맥을 이은 사대부들 사이에서 점차 고착되었다. 이들은 청량산을 매개로 퇴계와의 정신적 교감을 시도한 것이다.

반면 학연이나 지연 등에서 퇴계와 연결고리가 없는 사대부들의 장소이미지는 상당히 달랐다. 예컨대 소론(少論)에 속한 강재항은 청량산의 암벽을 보고 기괴하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송시열의 5대손인 송환기는 청량산이 아름답기는 하나 화양동(華陽洞)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후대로 올수록 퇴계와 인연이 없는 이들도 청량산과 퇴계를 연결짓게 된다. 이와 같이 사대부들이 청량산을 여행한 뒤 얻게 된 장소이미지는 청량산이라는 구체적인 경관 뿐 아니라 공간을 수용하는 개인적 배경이 중요하게 작용하여 형성되었다. 그 결과, 청량산은 조선후기 사대부들의 의식 속에 성리학(性理學) 또는 퇴계학(退溪學)의 거대한 성산(聖山)의 이미지로 자리 잡게 되었다.

끝으로 봉화군에서는 최근 들어 청량산박물관을 건립하는 등 청량산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본 연구가 유적지의 복원, 탐승루트의 개발 등과 더불어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여가 문화를 추체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 개발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